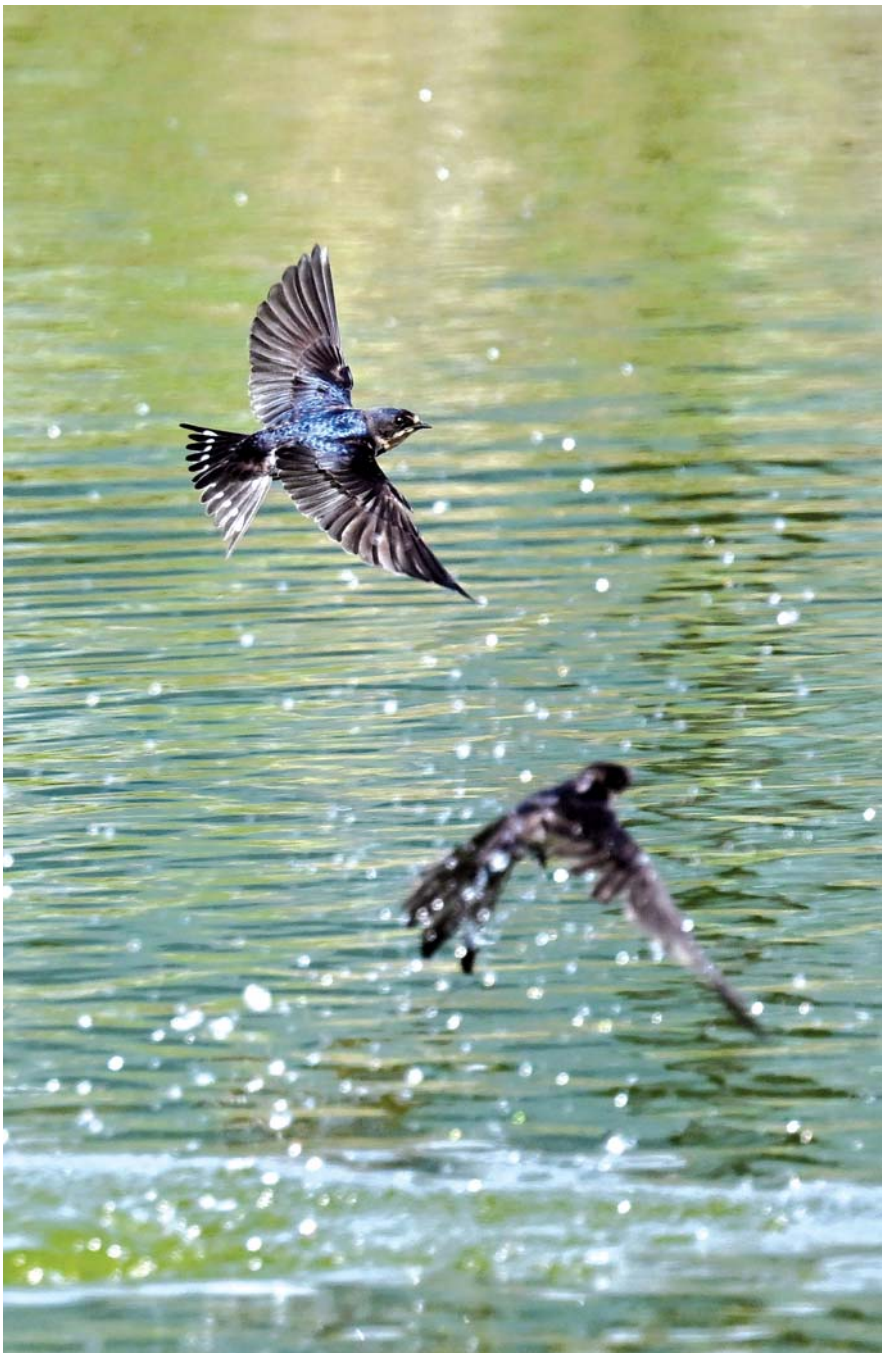




목욕하는 제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31일 제주시 조천읍 남생이못에서 제비들이 목욕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무명천 할머니’ 22주기 추모문화제

이달 5일 한림읍 월령리서

제주4·3의 아픔을 겪은 고(故) 진아영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무명천 진아영할머니살터보존회와 월령리 마을회가 오는 9월 5일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에 있는 진아영 할머니 살터와 월령리 해변공연장 일대에서 펼치는 ‘무명천 진아영 할머니 22주기 추모문화제’다.

31일 보존회와 마을회에 따르면 고 진아영 할머니는 1949년 1월 제주4·3 당시 토벌대가 쏜 총탄에 턱을 잃은 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명천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말 못할 고통 속에 한 많은 삶을 살다가 2004년 9월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진아영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추모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추모문화제는 ‘풀어내는 마음, 이어지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열리는 ‘제주 예술인 릴레이 추모 음악회’에는 9개 팀이 출연해 노래 공연을 펼친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리는 추모문화제에서는 법씨학교의 길트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노래하는 모다정의 4·3 노래공연, 이경식의 마음·비눗방울 퍼포먼스, 가수 해바라기의 무대가 펼쳐진다.

또 월령 선인장 플라마켓·제주전통 음식 무료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체험공간이 운영된다. 박소정기자

학교 현장 지원 강화한다는데… 취지 살리나

제주도교육청, 9월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 기능 강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당초 계획보다 인력 충원 미흡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 운영 이관… 인력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물론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업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향후 해결 과제로 남는다.

3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이 강화된다. 학교 현장에서의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센터 기능을 강화해 사안 접수부터 초기 대응, 갈등 조정, 사후 회복 지원까지 연계하

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활동보호 안심콜(064-1395)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과 공휴일(오전 9시~오후 6시)에도 문을 연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에도 나선다. 도교육청은 센터를 중심으로 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 같은 기능 강화에도 인력 확보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기존 전담 인력 4명에 더해 7명을 새롭게 충원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에 이달 1일자 인사로 장학사 2명과 주무관 1명을 추가 배치했다. 하지만 이외에 신규 채용 예정이던 4명(코디네이터 2명·갈등조정전문가 2명) 중 갈등조정전문가 1명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채용 공고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적어 현재 채용 공고가 진행 중이다.

이전까지 각 학교가 맡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이달부터 제주도교육청이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과 고충심의위 업무를 이관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각 학교가 성희

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 등 현장 대응에 집중하도록 한 취지다. 다만 이 역시 현재 전담 인력이 3명뿐인 도교육청 성인식개선센터가 담당하는 구조여서,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 등의 우려가 뒤따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내외부 위원으로 별도로 구성된다”면서 “앞서 (해당 업무를) 이관한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를 보면 분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이 동시다발로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인력 풀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기자

지방도 교량 균열·누수 점검
도, 9월 7일~11월 말까지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 7일부터 11월말까지 도내 지방도 교량 137곳의 구조물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종 시설물 6개소, 3종 시설물 84개소, 일반교량 47개소 등 모두 137개소다. 점검은 교량의 관리 유형에 따라 전문기관 점검과 자체 점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2·3종 시설물 90개소는 민간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점검하고 일반교량 47개소는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상태를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교량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과 누수, 철근 노출 여부를 비롯해 교량 난간의 안전성 등이다.

제주도는 점검 과정에서 구조적 이상이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국유지에 방치된 염소들… 소유자 오리무중

서귀포시 국가 소유 목장서
장기 방치 염소 7마리 발견
갈비뼈 앙상… “긴급구조를”

제주의 한 국유지 목장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들이 발견됐다.

3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국가 소유 목장에서 갈비뼈가 드러난 채 야생 염소 7마리가 발견됐다. 성체 6마리, 새끼 1마리 등이다. >>사진

최근 해당 목장용지를 현장 확인차 방문한 고모(40대)씨에 따르면 염소들이 발견된 곳은 축사 형태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축사 내부에는 먹이와 물이 아예 없었고, 울타리 주변에 잡초들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였다.

캠코는 국가 소유의 목축용 및 경작용 토지 등을 계약을 통해 국민에게 최대 5년간 임대하는 ‘국유재산 대부 계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목장용지도 최근 입찰 예비 공



고 목록에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 결과 이 목장용지는 지난해 6월 30일자로 전 임차인과의 계약이 만료된 곳으로, 전 임차인은 자신이 염소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약 2300평(7650㎡)에 달하고, 축사가 천막에 둘러싸여 있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캠코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입찰 예비공고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공고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을

찾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 염소 농가 등으로 분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견된 염소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며 긴급구조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는 “염소의 보호시설 등이 마땅치 않은 현실을 이해하지만 생명인데 긴급구조가 우선돼야 한다”며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다른 농가에 임시로 보낸 뒤 추후에 비용처리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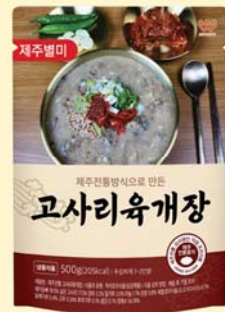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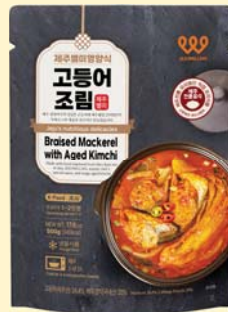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